

하늘 사랑

MARCH 2026
vol. 537

3

cover story

구름 카펫

2024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김대영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하늘 사랑

vol. 537

3

MARCH 202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6년 3월 5일
발행인 이미선
편집장 민현주
편집기획 김승민, 이재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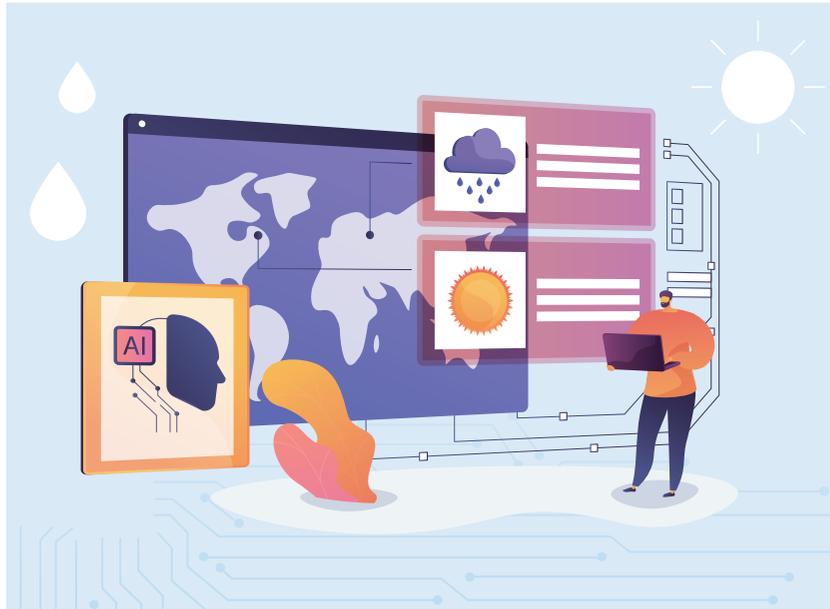


cover story

구름 카펫

2024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김대영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수치예보센터 편

04

국가기상위성센터, 행안부 인증 'AI 챔피언 블루' 탄생

06

3년 만에 발생한 가을 황사

08

하늘을 넘어 세계로! 기상, 기후위기의 최전선을 가다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t.or.kr



Weather Talk

- 10 3월의 하늘이 가르쳐준 인생의 황금비율
- 12 영화_ 여행과 나날(2025)
- 14 맛있는 계절_ 추위를 견딘 봄나물의 힘, 봄동 부침개
- 16 기자와 날씨라는 세계

Theme Story

- 18 2025년 최악의 가뭄, 강릉을 덮치다
- 20 천수답(天水沓)에서 데이터 활용까지: 물을 기다리는 마음
- 2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직원 공감 프로젝트 '마음집배원'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5 Platform
- 26 오늘, 당신의 날씨



기상청 사람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KIM'을 만드는 수치예보센터 편

기상청 대변인실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기상청 사람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은 기상청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휴먼 스토리까지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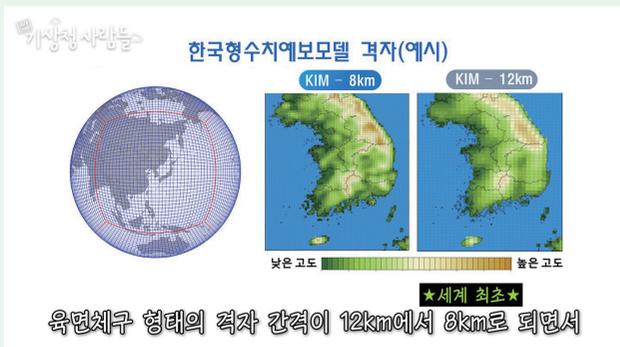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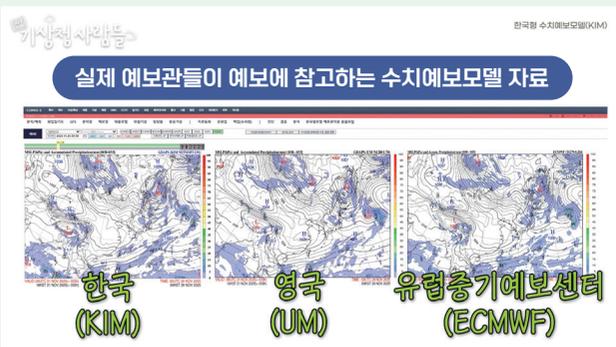
정부대전청사 수치예보센터.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직원들의 집중하는 눈빛과 모니터 화면 가득 한 코드, 그리고 작은 키보드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활용팀에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KIM'의 개선과 활용을 담당하는 최승보 연구사를 만났습니다. 😊

흔히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왜 날씨 예보가 안 맞느냐”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는 계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일 뿐, 예보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모델에 있는데요. 수치예보모델은 지상·해양·위성 등 관측 자료를 입력값으로 삼아 대기의 물리·역학 방정식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죠. 결국 보다 나은 예보를 위해서는 수치예보모델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날씨예보 프로그램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은 2011년에 시작해 9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현업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수치예보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단 9개국에 불과한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8km 고해상도 모델* 개선을 이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예보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날 제작진의 이목을 끈 순간은 최 연구사가 한국형 모델 개발의 의미를 약기에 비유해 설명할 때였는데요. 과거에는 일본이나 영국의 모델을 도입해 한반도 지형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이어서, 문제 발생 시 외부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델의 설계부터 튜닝, 개선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연구사는 “과거는 남이 만든 약기를 가져와 음을 맞추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직접 약기를 만들고 연주하며, 고장이 나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치예보모델은 지구를 마치 바둑판 같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서 각 격자마다 기온, 습도, 바람 등을 계산하며, 8km는 그 격자의 간격(거리)을 말합니다. 즉 8km 간격으로 지구의 대기를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딩과 실험으로 채워진, KIM을 만드는 하루

수치예보센터 직원들의 KIM을 만드는 하루는 대부분 모니터 앞에서의 코딩과 실험으로 채워집니다. 직원들은 관측 자료를 토대로 수치예보모델을 설계하고 코드를 구성합니다. 이후 대기의 물리·역학 방정식을 바탕으로 한 방대한 수치 계산은 슈퍼컴퓨터가 수행하고, 직원들은 계산 결과를 직접 분석·시각화해 예측의 정확도를 점검하며 모델을 개선합니다.

촬영 중에는 8km 고해상도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12km 모델보다 훨씬 세밀한 격자를 적용해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까지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 강남 침수 사례와 같은 극한 강수도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속 수치가 실제 관측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순간, 최 연구사의 얼굴에는 짧은 미소와 함께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



타닥타닥 (코딩 중)



매주 돌아오는 집중토론타임
KIM이 대체로 여름에 태풍 시그널을 잘 탐지하긴 하는데

회의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요. KIM 초기장과 IFS(유럽 중기예보센터 수치예보모델) 초기장 중 어떤 자료를 실험에 활용할지, 태풍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실험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문과 출신인 제작진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수치예보센터 직원들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KIM을 더 나은 모델로 만들기 위한 집중력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

KIM의 오늘, 그리고 내일

인터뷰 말미, 조익현 수치예보활용팀장은 KIM을 '기상청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살이 된 KIM이 청소년기를 거쳐 믿음직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국민과 예보관 모두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기상청은 KIM과 UM(영국 모델)을 병행하지 않고 KIM 단일 모델로만 예보를 지원하는데요. 이에 대해 최승보 연구사는 "이제 한국형 모델만으로 예보를 지원하게 되니 부담감도 크지만, 그만큼 예측성을 더 높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된다"며 "앞으로는 개발자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과 예보관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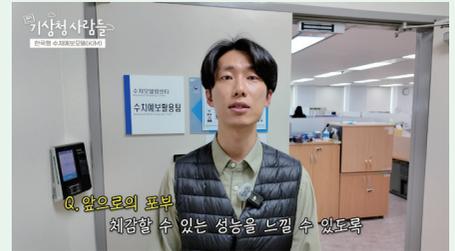
촬영을 마치며 제작진은 단순한 코드와 숫자 너머에 담긴 시간과 고민, 그리고 KIM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IM을 만드는 현장은 오늘도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살이 된 KIM은, 더 정확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예보를 향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우리 KIM과, 그 KIM을 만들어 가는 수치예보센터 직원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조익현 / 수치예보활용팀장

[KIM = 대한민국 기상청 자랑됨] 기상청의 얼굴을 KIM이다



Q. 앞으로의 포부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상청 사람들'을 포함한 기상청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해 주세요!



국가기상위성센터, 행안부 인증 'AI 챔피언 블루' 탄생

최준엽 국가기상위성센터

지난겨울,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AI 대전환(AI) 시대를 맞아, 기상청에서도 드디어 행정안전부가 공인하는 AI 실무 전문가인 'AI 챔피언 블루'가 탄생한 것(25.12.11. 인증)입니다. 위성 데이터를 넘어 기상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의 온기를 불어넣을 준비를 마친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AI 챔피언', 단순히 도구를 다루는 것을 넘어선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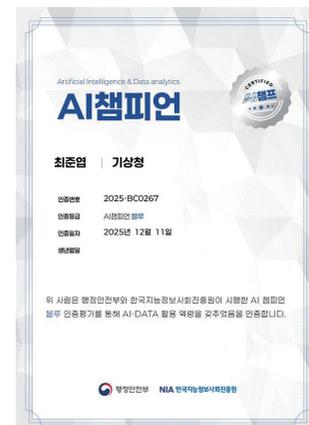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업무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AI 챔피언' 제도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AI를 '아는' 사람을 넘어, 공공 행정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줄 아는' 진짜 전문가를 뽑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획득한 '블루(Blue)' 등급은 그중에서도 꽤나 '매운맛'으로 통합니다. 기획 중심의 '그린(Green)' 등급과 달리, 블루 등급은 직접 파이선 코드를 짜고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해야 하는 실행 중심의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 구성원이 이 험난한 과정을 통과했다는 점은,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 분석 역량이 범정부 차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아주 기본 좋은 증명이기도 합니다.

● 행정안전부 '공공 AI 역량 트랙'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AI 챔피언 인증

- AI 융합 트랙 요구 역량 달성자는 그린 인증, AI 개발 트랙 달성자는 블루 인증

교육과정	육성 목표	AI 챔피언 연계	역할
AI 융합	AI 융합 실무자	그린	AI 전환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 기획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무 기획자 역할
AI 개발	AI 전환 실행자	블루	AI 전환 사업을 기획·설계하고, PoC부터 구축·준공까지 실무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실행 중심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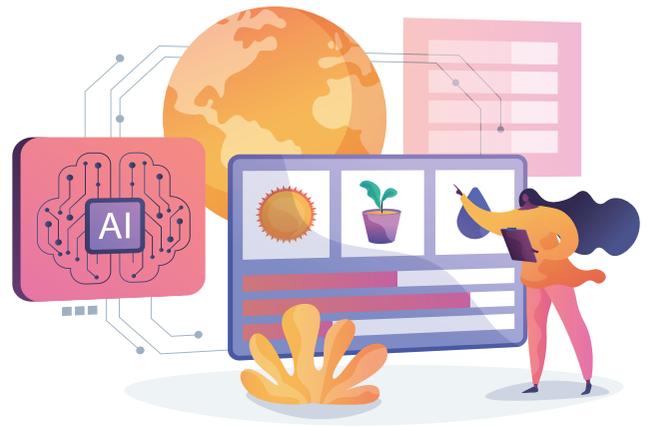


※ AI 마스터 과정 요구 역량 달성자는 AI 챔피언 블랙으로 연계(2026년 도입 예정)

행정안전부 인증 AI 챔피언 블루 인증서

‘AI 역량 트랙’ 2.5시간의 치열한 사투가 만든 결과

인증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진 집중 교육 기간은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낯선 파이썬 코드와 씨름하고, 생성형 AI의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죠. 최종 관문인 3종 수행평가 2.5시간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 행정 시나리오를 주고 “지금 당장 AI로 해결해 보라”는 과제가 던져졌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도시 이미지를 생성하고, 복잡한 회의록에서 담당자별 할 일을 자동 추출하는 스크립트를 짜는 등 최신 기술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손에 쥔 ‘블루’ 인증서는 그래서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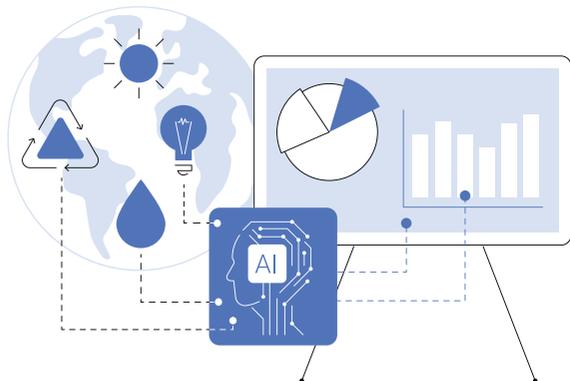


위성을 넘어 우리 업무 곳곳에 스며들 AI의 마법

“인공지능? 그거 우리랑은 먼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탄생한 AI 챔피언들이 꿈꾸는 변화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상위성센터의 방대한 위성자료를 분석해 더 정확히 기상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겠지만, AI의 활약은 개개인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기상 보고서를 AI가 핵심만 콕 집어 요약해 주고, 복잡한 민원 전화에 대답할 수 있는 똑똑한 챗봇이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블루 과정에서 다룬 ‘LLM 기반 자동화’ 기술이나 ‘시계열 예측 모델’은 사실 위성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모든 행정, 예보, 관측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물 같은 기술들입니다. AI 챔피언들은 이제 우리 조직 곳곳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디지털 전도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내일, ‘블랙’을 향한 더 큰 발걸음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2%를 이력한 AI 정예 요원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번 1호 블루 인증자 배출을 시작으로 더 많은 ‘그린’과 ‘블루’ AI 챔피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는 2026년에 신설될 최고 등급인 AI 챔피언 ‘블랙’을 향한 도전도 이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전문가가 아니라, 기상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AI 기술을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기상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상청이 나아가길 진짜 목표입니다.



3년 만에 발생한 가을 황사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는 매년 전년도 황사 사례에 대한 다양한 관측 결과를 종합한 <황사사례분석집>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다. <2025년 황사사례분석집>은 2025년 발생한 황사 사례 7건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 이동 경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1월 27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황사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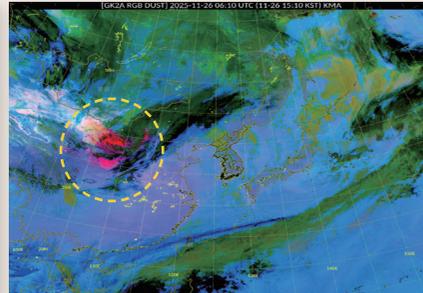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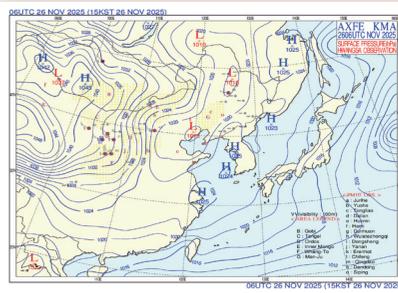
기상청에서는 주로 동아시아 대륙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일어난 모래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면서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을 ‘황사’라고 말한다. 황사는 매우 짙은 황사, 짙은 황사, 옅은 황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기준은 1시간 평균의 미세먼지농도($\mu\text{g}/\text{m}^3$)를 확인하여 결정된다. 황사경보 수준인 매우 짙은 황사는 미세먼지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이며, 미세먼지경보 수준인 짙은 황사는 $300\mu\text{g}/\text{m}^3$ 이상 $800\mu\text{g}/\text{m}^3$ 미만의 기준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옅은 황사는 미세먼지농도가 $300\mu\text{g}/\text{m}^3$ 미만인 사례를 말한다. 2025년에는 옅은 황사 5회, 짙은 황사 2회로, 총 7건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2025년 11월 27일 황사의 경로

11월 26일 낮 동안 만주 지역에 위치한 저기압후면(고비사막, 황토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였다. 이 황사는 동진하는 저기압 후면을 따라 남동진하여 중국 동부지역(산둥반도 이남)을 거쳐 이동해 27일 오후에 우리나라 남서부 해안(제주도 포함)에 영향을 주었다(그림 1). 이 황사는 3년 만에 발생한 가을철 짙은 황사로 구분되었다.



2025.
11. 26.
15KST



2025.
11. 27.
15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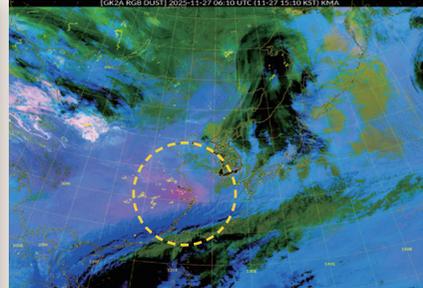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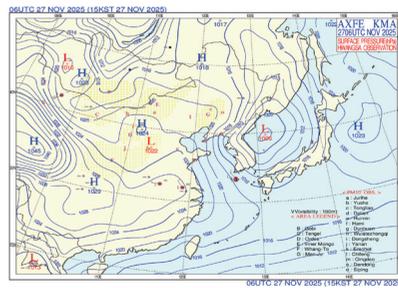


그림 1. 2025년 11월 26~27일 지상일기도와 위성사진

2025년 11월 27일 황사 분석 결과

3년 만에 발생한 가을철 황사는 흑산도에서 11월 27일 12시에 목측으로 관측되었고, 이때 흑산도 지역의 미세먼지농도는 $190\mu\text{g}/\text{m}^3$ 로 나타났다. 이후 제주도에서 $268\mu\text{g}/\text{m}^3$, 진도군에서 15시에 $306\mu\text{g}/\text{m}^3$ 로 높은 미세먼지농도를 보였고, 진도군에서 관측된 미세먼지농도에 의해 이번 황사는 짙은 황사로 구분되었다.

또한, 제주고산 지구대기감시소에서 상시 운영 중인 공기역학입자계수기를 이용한 입자크기별 부피농도 관측 결과, 11월 27일 8시부터 조대입자영역에서 부피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같은 기간 제주고산 지구대기감시소에서 에어로졸시료채취기로 채취된 시료를 가지고 수용성 이온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인간 활동에 생성되는 오염물질(질산이온, 황산이온, 암모니아이온)이 34.7%, 해염성분(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염소이온)이 48.2%, 황사 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성분인 토양성분(칼슘이온)이 16.0%로 나타났다. 이때, 안면도에서 관측한 칼슘이온 평균조성비는 2.6%로 최근 10년(2014~2023년, <2024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보다 약 6.6배 정도 높았는데,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이 지역도 황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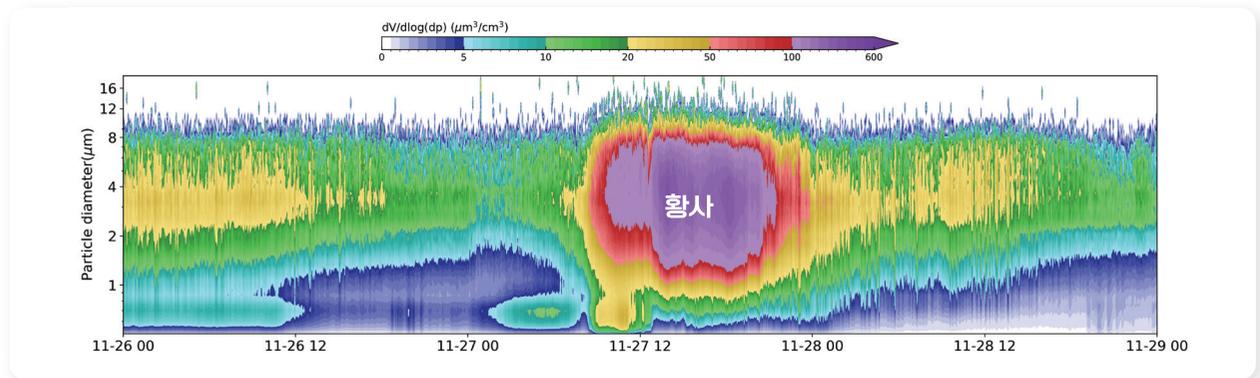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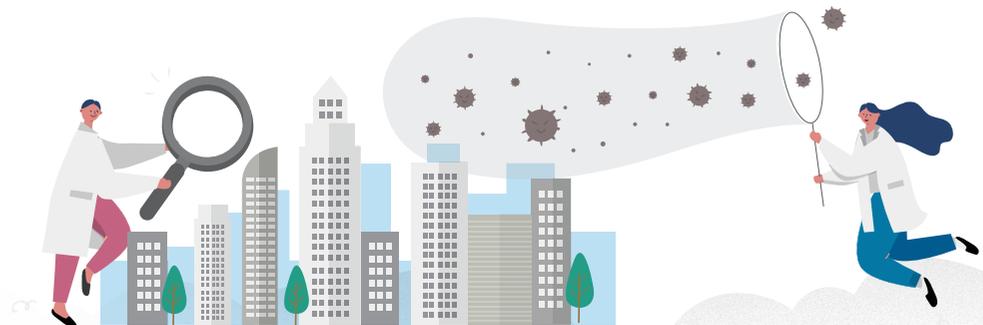


그림 2. 제주고산 공기역학입자계수기(APS)로 관측한 입자크기별 부피농도($dV/d\log D_p(\mu\text{m}^3/\text{cm}^3)$)

앞으로의 황사 사례 분석과 연구 계획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는 해마다 <황사사례분석집>을 발간하며 다양한 관측(에어로졸 물리, 광학, 화학)자료 및 황사일기도, 위성관측 자료를 수록하고 있고, 한반도에 영향을 준 황사발원지와 이동 경로 및 전국 지점별 황사일수도 최신자료로 갱신하고 있다.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는 앞으로도 황사 사례에 대한 관측 및 다양한 자료 이용을 통해 사례분석집을 발간하고, 추후에는 누적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황사 사례에 대한 에어로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늘을 넘어 세계로 기상이, 기후위기의 최전선을 가다



배철호 기후과학국

지구 두 바퀴, 7만 킬로미터의 비행!

“브라질에서의 나비 날갯짓 한 번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기상학의 오래된 명제인 ‘나비 효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저 기상은 그 나비의 날갯짓을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제63차 총회를 시작으로, 아마존의 심장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까지, 세계의 기후 현장과 뜨거웠던 논의의 현장에 다녀온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IPCC 총회는 전 세계 기후과학자와 정부 대표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보고서의 방향과 작성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감축과 적응, 자원과 이행을 둘러싼 국제 정책을 협상하는 무대였는데요. 하나는 과학의 언어로, 다른 하나는 정책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다루지만, 결국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했습니다.

IPCC 제63차 총회 치열했던 과학적 합의의 장

2025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총회는, 제7차 평가주기(이하 AR7)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번 총회는 제7차 평가보고서 WG I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평가), WG II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취약성 평가), WG III (기후변화의 완화 평가) 보고서 발간 일정 및 CDR/CCUS(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 승인 등 굵직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① IPCC 총회장 모습(출처: ENB)
- ② IPCC 총회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허들 회의(출처: ENB)
- ③ IPCC 총회에서 발언하는 기상청 대표단
- ④ IPCC 총회에 참석한 기상청 대표단 (출처: ENB)



Sixty-third Session of the IPCC
27 - 30 October 2025
Lima - Peru

기상이도 함께

특히 우리 대표단은 보고서의 정책 연계성과 시의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포괄성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조속한 합의 필요성과 환경 건전성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규정을 인용하여 추가적인 전문가 회의 개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3박 4일 밤낮없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AR7 전체 발간 일정(2025~2029)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회기(64차)로 연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과학적 잣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맞부딪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표단이 대한민국의 기후 주권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숨 돌릴 틈 없는 강행군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저는 다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죠. 짐을 다 풀지도 못한 채 다시 향한 인천공항이라 그런지,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차 당사국총회에서 저는 세부 회의인 SBSTA63(11.10.~11.15.)에 참석하여, 기후과학 연구 및 체계적관측(Research and Systematic Observation, RSO)에 대해 논의 및 결론문 검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SBSTA의 공식 행사인 2025년 지구 정보의 날, 세계기상기구(WMO) 주관으로 개최하는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 전지구 온실가스 감시(G3W) 등 WMO 핵심 사업 관련 부대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IPCC, WMO 및 관련 국제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별 쟁점 사항을 분석하는 것은 저 기상이에겐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COP SBSTA 비공식회의(출처: ENB)



COP30 기념사진



3주간의 기록 9시 뉴스 너머 '기후 대응의 현주소'를 마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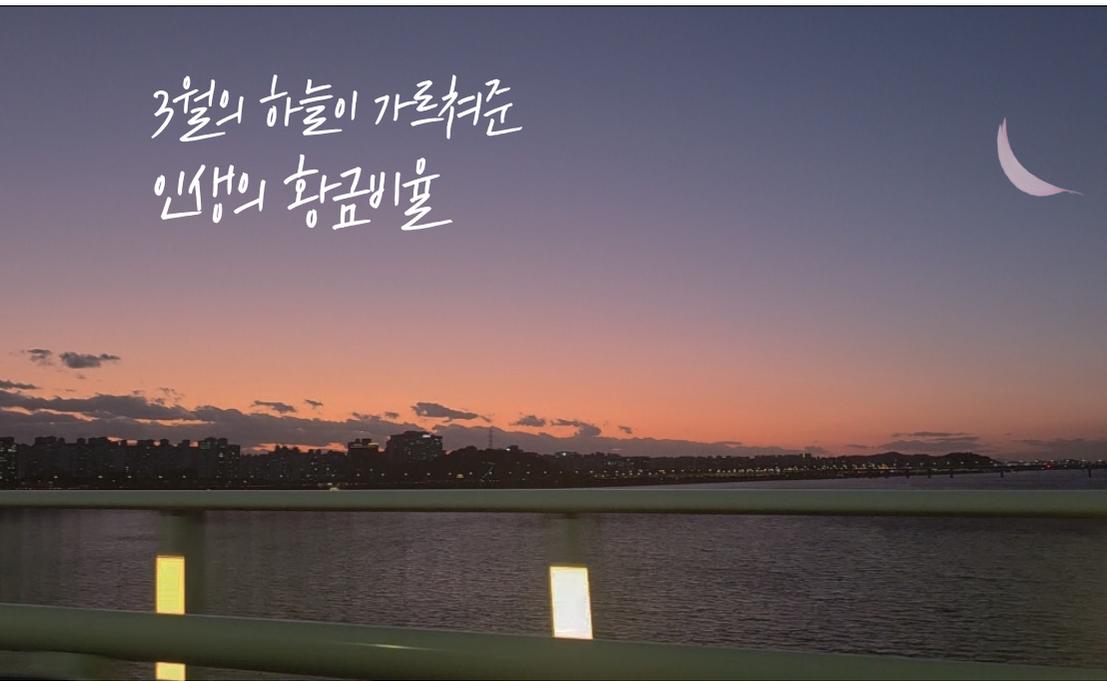
페루의 안데스산맥에서 브라질의 열대우림까지, 지난 3주간의 여정은 저 기상이에겐 단순한 출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상청이 기후과학 국제사회 속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무게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상청은 하늘을 관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과학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 국제 대응의 현장에서 각국의 이익과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후과학을 통해 우리 기상청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기후 행동의 표준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출장 보고서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열기를 가슴에 품고,
기상청의 영원한 마스코트 기상이 올림





최서연 방송작가

겨울의 미련과 봄의 설렘이 교차하는 계절, 3월은 참으로 묘한 달입니다.

별은 따스한데 바람은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만들죠. 이 시기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우리는 꽃샘추위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물러가며 남긴 마지막 미련과, 저 멀리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기운이 한반도 상공에서 팽팽하게 힘겨루기 하는 탓이래네요. 이 변덕스러움이야말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맞이하기 위한 대지의 치열한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작가로서 원고를 쓸 때마다 날씨를 가장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야외 촬영 현장에서는 비 한 방울, 바람 한 줄기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날씨가 사람의 감정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월의 원고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네 삶이 꼭 이맘때의 날씨를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매서운 추위 뒤에 반드시 오는 온기,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 방송의 오프닝과 클로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 편의 이야기가 완성되듯 우리 삶도 끊임없는 조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3월의 절기, 춘분(春分)을 생각하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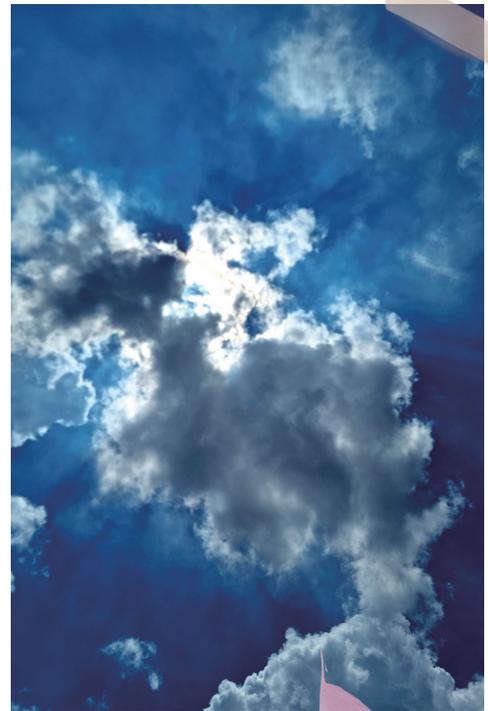
그 치열한 기운의 싸움이 잠시 멈추고 완벽한 평형을 이루는 날이 바로 24절기 중 네 번째인 춘분입니다. 태양이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며 지구 위 모든 곳의 낮과 밤이 똑같이 12시간씩 나누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빛과 어둠이 서로 사이좋게 절반씩 땅을 나누어 갖는 이날은, 예부터 단순한 천문 현상을 넘어 우리 삶의 균형(Balance)을 되돌아보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조선의 왕들에게 춘분은 한 해의 국운을 읽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밀한 위성 데이터는 없었지만, 선조들은 춘분 무렵 부는 바람인 '춘분풍'을 관찰하며 백성들의 평안을 기도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 민족의 국보, 양부일구 즉 해시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시계는 당시 첨단 기상 관측 장비였습니다. 춘분날 양부일구의 그림자를 살펴보면, 시계 안의 수많은 가로선 중 정확히 정중앙의 선을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또한 날씨가 흐려 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자격루(물시계)를 통해 변함없는 시간의 맥박을 짚었죠.

또 춘분에는 '영성제'를 지내며 농사를 주관하던 별에게 농사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기상청의 현대적 예보 시스템이 없던 시절, 제사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의 기상 대응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늘과 땅의 기운이 딱 반으로 나뉘는 이 균형의 날에, 인간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과의 공존을 허락받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처럼 기상 상황 앞에서 때론 과학적이고 때로는 풍속적으로 절기에 맞춰 안녕을 기원했던 노력은, 곧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을 찾으려 했던 선조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균형이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방송 현장에서 수많은 컷을 자르고 붙이며 최적의 템포를 찾아내듯, 균형 또한 끊임없이 흔들리며 제 자리를 찾아가는 동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꽃샘추위의 매서운 바람과 봄벌의 온기가 팽팽하게 맞서며 춘분이라는 완벽한 지점을 만들어내듯, 우리 삶의 균형도 치열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전리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일에 너무 치우쳤다면 내일은 휴식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마음의 소음이 너무 크다면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스스로 인생의 편집점을 잡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한 삶으로 안내하는 법이니까요.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균형으로 흐르고 있나요?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느덧 삶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일쑤죠. 하지만 3월의 절기, 춘분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낮만큼이나, 고요하게 자신을 돌보는 밤의 시간도 똑같이 소중한다고 말이에요.



어느덧 3월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처럼 지금 여러분의 일상도 일과 휴식, 타인을 향한 관심과 나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잠시 멈춰 서서 사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3월의 꽃샘바람이 지나가면 대지는 곧 완연한 봄의 색으로 물들 것입니다. 모자람도 넘침도 없는 춘분의 햇살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고르게 스며들어, 저마다의 아름다운 계절을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제법 평범한 봄이 새로 펼쳐질 것이다:

영화 여행과 나날(2025)

김동진 작가



출처: 네이버

일본에 체류 중인 영화 시나리오 작가 '이'(심은경)는 그럭저럭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국문으로 다음 시나리오 초고를 쓰는 '이'의 표정이 어쩐지 만족스럽지 않아 보인다. 관객으로서의 예감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완성된 영화의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행사 자리, 감독의 옆자리에 앉은 '이'는 완성된 영화를 보고 각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한 관객의 질문에 대뜸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는 답변을 한다. 흔히 말하는 슬럼프. 이야기를 들은 영화과 교수는 어디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그러냐며 바람을 넣고, '이'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아마다타 현의 작은 마을에 머무른다.

갑자기 떠나온 탓에 걸음한 호텔들마다 빈방이 없어 여관인지 산장인지 정체감이 잘 가늠되지 않는 허름한 산속 집에 며칠을 머무르게 된 '이'의 이야기가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 <여행과 나날>(2025)의 2부에 해당된다. 마치 '이'가 쓰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스크린에 구현한 듯한 1부가 영화의 앞단에 펼쳐지기에 나 같은 관객로서는 작가가 구상하면서 노트에 쓰는 문장이 그대로 영화로 옮겨지는 광경을 거의 실시간처럼 보는 독특한 관람 경험을 하게 된다. '차 뒷좌석에 여성이 잠들어 있다'라고 노트에 끼적이는 장면 다음엔 실제로 '나기사'(카와이 유미)가 차 뒷좌석에서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 것. 이러한 배치는 영화 제목에도 지시되어 있지만 여행과 여행 밖 일상, 또는 일상과 일상 밖 여행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눈 덮인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한 2부와 달리 1부는 한여름 바닷가가 주 무대이기에 두 계절의 풍광을 모두 보게 되는 점이 일단 그렇고, <여행과 나날>은 마치 의도한 듯 둘 사이의 선후 관계(어느 쪽이 먼저 일어난 일인지)를 명시하거나 중요하게 암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도 넘나든다.



출처: 네이버

여행은 일상의 연속일까, 아니면 어딘가로 떠나는 일이 일상을 달리 보거나 다른 의미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될까.

예전에는 어딜 떠나든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한다고, 심의 여정이 소중한 동시에 그것 자체가 너무 낭만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비행기 직항으로 열 시간이 넘게 걸리는, 낮과 밤이 바뀌는 도시에 며칠을 머무르는 동안 나는 언제나 며칠 뒤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그곳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가족이든 연인이든)이 있다. 놀기만 한다면 내 생활을 잃을 것만 같아서. 몇 년 동안 몇 군데의 도시를 다녀보는 동안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비일상의 장소에선 어딘가 비일상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근래에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갖게 됐다. 1월호 이 지면에서 도쿄에서는 제법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서술했지만 내 휴가는 심상하고 평범했다. 삶의 많은 순간은 평이하고 단조롭다.



출처: 네이버

<여행과 나날>의 미덕은 '이'가 머무는 그곳에서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느지막하게 일어나 숙소 주인이 차려준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고 그저 시간을 보낸다. 물론 시나리오 창작의 슬럼프도 획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주 웃기고 즐거운 것들로만 삶이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그게 재미없지 않겠느냐고 마치 세월을 초월한 현자처럼 숙소 주인은 '이'에게 말해준다. 작심하고 훌쩍 떠난 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어쩌면 대단한 걸 얻고 돌아오는 여정이 아니라는 데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가 창작의 영감이나 전환점을 당장 얻고 돌아온 여정이 아니라 해도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은 어딘가에 분명 남아 있다. 내가 쓸 수 없을 때 강물이 나 대신 뭔가를 쓰거나 그려주고 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영화 속 스크린이 대신 빛을 쬐게 해 준다. 한 영화에서 푸른 바다를 보다가 새하얀 눈밭을 연이어 목격하고 나니 이 우연하고 험령한 하루하루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건 결국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몫이라는 걸, 겨울을 나는 동안 그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긴 휴가를 다녀오고 긴 겨울을 보내고 나니 이제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여행과 나날>은 대단한 구원 같은 게 어디 있다고 말하는 대신 이 나날에 몸을 잘 맡기고 흘러가 보자고 내게 말을 걸어주었다. 눈이 녹고 나면 다시 평범한 봄이 펼쳐질 것 같다.



출처: 네이버



출처: 네이버



추위를 견딘 봄나물의 힘, 봄동 부침개



이주현 푸드칼럼니스트



겨울이 되면 식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몸을 낮춘다. 잎을 거두고, 성장을 멈추고, 가능한 조용히 계절을 견딘다. 아마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봄이 오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개 기다림뿐이다. 그런데 봄동은 조금 다르다. 이 식물은 몸을 낮추고 추위를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그렇게 겨울을 이겨낸 뒤 봄이 오면, 더없이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며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봄동은 겨울철 노지에서 파종해 한겨울 추위를 그대로 견디면서 자라는 채소다. 이런 이유로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배추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잎이 짝 차 속에 단단히 여무는 결구형 배추가 아니라, 잎이 옆으로 퍼지며 자라는 개장형 배추이기 때문이다.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기 때문에 '납작배추' 혹은 '딱갈배추'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종종 봄동을 속이 들지 못한 배추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봄동은 낮은 자세를 통해 오히려 최적의 맛과 영양을 응축시킨다. 추운 겨울 내내 봄동의 잎 사이에는 봄채소 특유의 단맛과 수분감이 고스란히 남는다.

봄동은 영양 측면에서 밀도가 굉장히 높은 채소다. 특히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칼슘 함량이다. 봄동 100g에는 1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달걀의 2배에 해당하며 우유와 비슷한 수준이다. 칼슘은 성장기나 노년기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다. 혈액응고, 신경전달, 근육 수축 및 이완 등 일상적인 생리 기능 전반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이다. 한국인의 70%가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 계절 봄동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게다가 봄동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일반 배추에 비해 6배 이상 들어 있으며, 비타민 C의 함량 역시 배추와 양배추보다 월등히 높다. 이 성분들은 활성화 산소를 억제해 노화는 물론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특징 덕분에 봄동은 '항산화 성분의 보고'라고도 불린다.



수분이 많은 봄동을 먹으면 입안이 상쾌해진다. 씹을수록 단맛과 고소한 맛이 차분히 올라온다. 이런 특징 덕분에 봄동은 곁절이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특히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데, 봄동은 단백질과 지방이 적은 채소이기 때문에 육류와 함께 씹으로 곁들이거나 곁절이로 즐기면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봄동의 아삭하고 단단한 식감은 곁절이로만 즐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봄나물 부침개는 어떨까.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 고소한 풍미가 더해지면 봄동의 매력이 한층 더 또렷해진다. 들어가는 재료는 봄동 이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냉장고에 있는 다양한 채소나 재료를 마음껏 넣어도 좋다. 양파나 당근을 채 썰어서 봄동과 함께 반죽에 섞어도 좋으며, 새우 대신에 오징어나 조갯살 등의 해산물, 혹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의 육류를 넣어도 잘 어울린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봄동 부침개는 향과 맛이 강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다. 간장 이외에도 마요네즈, 스리라차, 머스터드 등 다양한 소스를 곁들이면 아이들도 즐겁게 먹을 수 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굳이 특별한 음식을 찾지 않아도 제철 해소 하나로 충분히 몸을 돌볼 수 있다. 2026년도의 봄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봄동과 함께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봄동 새우 부침개'



필요한 재료

봄동 6~7장, 청양고추, 홍고추, 새우, 부침가루 3큰술, 전분가루 2큰술, 물 100ml, 소금 2꼬집, 참치액 1/2큰술



만드는 과정

- 1 봄동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잘게 썬다.



- 2 청양고추, 홍고추를 다진다.



- 3 그릇에 부침가루, 전분가루, 물, 소금, 참치액을 넣고 잘 섞는다. 여기에 앞서 준비한 채소들을 넣고 섞어준다.



- 4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채소 반죽을 한 손가락 올려 모양을 잡는다. 그 위에 새우를 올려 함께 굽는다. 새우가 반죽에 1/3정도 들어가야 분리되지 않는다.





기자와 날씨라는 세계

박민주 서울경제신문 기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뉴스는 무엇일까. 물론 정해진 답은 없다. 누군가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국회 내 벌어지는 고소 고발전, 누군가에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금값의 향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배웠다. 바로 날씨다.

모두가 오늘의 날씨를 궁금해한다. 비가 오면 널어놓은 빨래가 마르지 않고 눈이 오면 차가 거북이처럼 걸어가기 때문이다. 이때 계획해 놓았던 많은 일들에 변수가 생긴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핫팩을 챙겨야 하고 목도리를 칭칭 동여매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양산을 들고 다니며 물을 마셔야 한다. 하다못해 퇴근 후 집 앞 하천에서 가볍게 러닝을 뒀지 말지도 날씨가 결정한다. 농업과 어업 종사자처럼 생업이 날씨와 직결되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2년간 사회부에서 쓴 기사를 세어보니 대략 1,200개다. 이 중 약 20~30%는 날씨 기사다.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들도 헤아려 보면 늘 날씨 기사가 포함돼 있다.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난다거나 추위가 풀린다는 기사에는 열화 같은 댓글도 달리기 십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인들에게서도 이따금 이런 말들을 듣곤 했다. “도대체 언제 덜 추워져?” “내일 날씨는 어떨때?” 출근하자마자 내 날씨 기사를 읽는 게 낙이라던 친구도 있었다.

좋은 날씨 기사의 전제 조건은 정확한 예보다. 기상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 정례 예보 브리핑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다. 기상청은 폭우나 폭설 등 기상이변이 예상될 때에는 수시 브리핑을 진행한다. 브리핑은 극한 기상일수록 길어진다. 현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낯설고 어려웠던 기상 용어들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기상청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전달한 결과다.



'기상청 유튜브(라이브)'에서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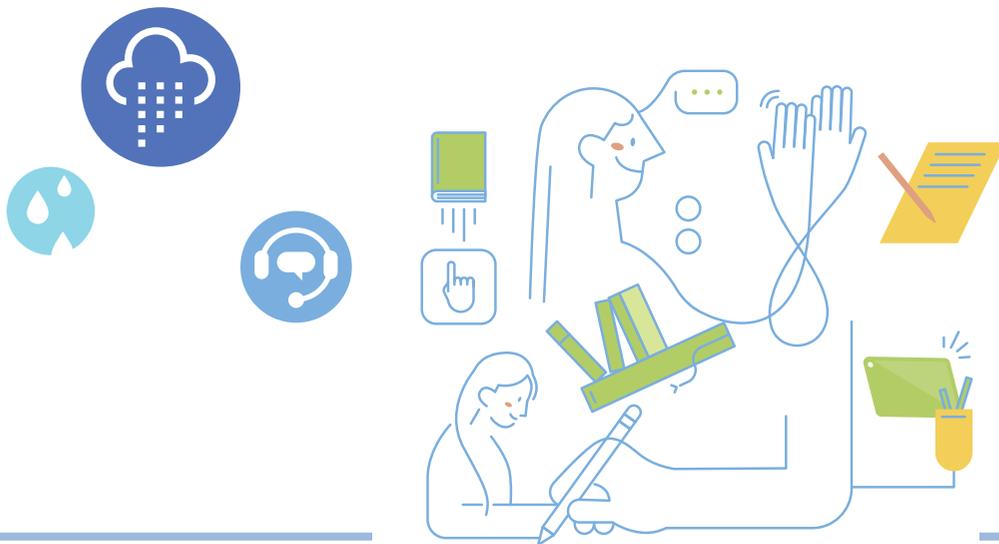


앞으로도 언론과 기상청이라는 불가분의 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의 출입처는 돌고 돌지만 날씨의 중요성은 변치 않는 탓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보 기록은 1905년 11월 1일의 것이라고 한다. 당시 날씨는 '맑음'. 그 후로 방송 일기예보가 시작된 시기는 1925년이다. 꼭 100년이란 시간 동안 나를 포함해 수천, 수만 명의 언론인이 날씨를 전해 왔다.

“인공지능(AI)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상콜센터를 취재하면서 상담원에게 느꼈던 동질감도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상청 산하 기상콜센터는 131을 누르면 ARS의 해설과 함께 필요하다면 상담사들과 연결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 댓글을 통해 누리꾼들이 기자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지인들이 내게 묻는 것과 유사한 질문들이다. 결국은 내일, 다음 주, 올해 날씨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것. 베테랑 상담사들은 쉽고 간결하게 답변을 건넨다.

이렇듯 단순한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일 강수량을 떠나 국민이 필요한 행간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가 날씨 기사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재해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언론의 사명도 깊어진다.

봄이 오면 벚꽃 개화 소식이 들려온다. 마침 이 소식지가 나가는 날도 벌레들이 깨어나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땅 밖으로 나오는 절기상 경칩이다. 옮겨울은 대기 정체(블로킹) 현상으로 유독 혹독한 추위가 길었다. 긴 겨울을 견딘 만큼 이번 봄만큼은 따뜻하고 활짝 핀 꽃들로 풍성한 계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짧은 봄 이후 무더위가 찾아오면 기상청도 언론도 또다시 바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뉴스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2025년 최악의 가뭄, 강릉을 덮치다

김종훈 강원지방기상청

가뭄의 시작

2025년 여름철 남부지방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반면, 강원영동 지역은 며칠씩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의 비만 내리는 날이 반복되면서 4월 중순부터 지속된 기상가뭄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강릉 지역의 경우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점차 낮아져 15%대에 진입하면서 결국 8월 30일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다.

제한급수와 변화된 일상

저수율이 하루하루 줄어들자 강릉시는 저수율 하락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했다. 제한급수 초기에는 공공수영장 운영 중단 등 비교적 완만한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저수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결국 9월 6일부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간제 제한급수가 시행되어 특정 시간대에만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변화는 나의 일상을 크게 바꾸었다. 시간제 제한급수 첫날, 정해진 시간대에만 물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급수 시간이 되자마자 물을 받기 시작했고, 밀린 빨랫감을 넣어 세탁기를 돌리는 동시에 쌓여있는 설거지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세탁기는 작동하다 중간에 멈춰버리고 설거지도 끝내지 못했다. 몇 분 사이에 정해진 급수량을 모두 사용해 단수가 된 것이다. 다음 날도 첫날과 다르지 않았다. 물을 약간 받아두긴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했기에, 생수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동해시에 있는 빨래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머리를 감거나 세안을 하는 것에도 대부분 생수를 사용하였다.



휴대용 캠핑 샤워기



펌프식 샤워기

강원지방기상청의 풍경도 달라졌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저수율에 따라 수도밸브를 50% 잠그면서 수압은 약해졌고, 체력단련실이 폐쇄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받아둔 물로 샤워하기 위해 폼폼식 샤워기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아파트 급수 시간에 맞추기 위해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많은 도움으로 견뎌낸 가뭄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뉴스에서는 연일 강릉의 상황을 보도했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강릉시로 급수를 지원해 주었고, 전국 각지에서 생수를 보내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따뜻한 마음들은 가뭄을 견뎌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국에서 지원받은 생수

이러한 도움들은 식수 및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면서 저수율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강원지방기상청에서도 가뭄 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상관측차량으로 오봉저수지에 특별관측을 나갔고, 관계부처 대책 회의에서 기상전망 브리핑 등을 지원하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가뭄은 2025년 4월 19일부터 시작해 157일째 지속하였으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2025년 9월 22일부로 가뭄재난사태가 종료되었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던 제한급수도 종료되면서 불편했던 생활은 끝이 났다. 신이 난 마음에 물을 싣기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으나, 오랜 가뭄으로 인해 물의 소중함을 느껴 아껴 쓰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길고 힘들었던 가뭄은 내게 일상에서 쉽게 사용했던 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소중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남겼다.



천수답(天水沓)에서 데이터 활용까지: 물을 기다리는 마음

박창근 국립기상과학원

비가 오기를 기다리던 천수답의 시대부터 정밀한 관측과 예측이 이루어지는 오늘날까지, 물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농경 사회의 물 관리 지혜를 돌아보고 기후변화 시대에 과학과 데이터가 물을 어떻게 다시 묻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다림의 물, 천수답의 시간

논에 물이 차오르지 않으면 농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개시설이 보편화되기 이전, 많은 논은 하늘이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논을 ‘천수답(天水沓)’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늘의 물을 기다리는 논이었습니다.

천수답의 농사는 계산보다 인내에 가까웠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의 모양과 이동, 바람의 결, 계절의 기척을 살피며 비의 시기를 가늠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하루이틀의 경험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축적된 생활의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으면 내일을 기다렸고, 올해가 아니면 다음 해를 준비하였습니다. 물은 관리의 대상이기 이전에,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농경 사회의 물 관리 방식은 흔히 ‘비과학적’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관찰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수치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 사람들은 강수의 반복성과 변동성을 몸으로 기억해 왔습니다. 하늘을 보는 일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관측이자 판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관측의 시대, 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

이후 우량계가 설치되고 하천과 저수지의 수위가 숫자로 기록되면서 물은 기다림의 대상에서 측정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수량, 유출량, 저수율은 표와 그래프로 정리되었고, 물은 점차 관리 가능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도시 확장과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관측 기술의 발전은 예측의 가능성도 함께 넓혔습니다. 과거에는 경험에 의존하던 강수 전망이 수치 예보로 제시되기 시작했고, 물 부족과 홍수에 대한 사전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물 관리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고려하는 계획의 영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측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한계도 분명해졌습니다. 관측값은 과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미래를 완벽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시·공간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호우나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은 기존의 평균적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측과 예측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한 해석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

기후변화 시대의 물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내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내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강수량이라도 집중호우는 재해가 되고, 고르게 내리는 비는 자원이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물을 해석하는 질문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도구이지만, 불확실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수록,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만큼이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태도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천수답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시절의 태도-자연의 변화를 단정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면 시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과학적 관측과 데이터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물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천수답에서 시작된 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은, 데이터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직원 공감 프로젝트 '마음집배원'

김정희 대구지방기상청

새로운 조직문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최근 많은 기관에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갖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와 우리 기관의 활력소가 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대구지방기상청의 따뜻한 칭찬문화 '마음집배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생각은 깊이, 행동은 빨리! 우리 기관 현주소 찾기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대구지방기상청은 장기간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는데요. 특히, 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 청원경찰 등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대구를 비롯한 안동, 포항 그리고 섬 지역인 울릉도까지 근무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조직의 결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기관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 우리만의 행복한 조직문화를 찾다

“다양한 구성원들과 멀리서 살 지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문화, 어디 없나?”

“전 직원이 함께하면서 부서와 계층 간 벽도 허물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기관에 맞는 조직문화를 찾기 위한 긴 여정 끝에 찾은 답은 바로 '칭찬'과 '공감'이었는데, 행복을 위해 필요한 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칭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직원 공감 프로젝트 '마음집배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마음집배원'은 직원 공감과 칭찬을 통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평소 칭찬하고 싶은 직원에게 책과 함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큼한 비타민도 함께 선물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칭찬받은 사람이 다음 칭찬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청소, 조리원 등)과 청원경찰까지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칭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칭찬,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칭찬이 일상이 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어렵지 않아요!”

2024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회차까지 진행되어 온 ‘마음집배원’은 형식적인 포상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왜 고마운지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책 선물은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여, 칭찬의 진정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은데 어떻게 칭찬해야 하나요?”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많은 직원들이 마음집배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직 내 칭찬의 분위기가 활성화되었고, 이제는 칭찬도 함께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랑말랑~ 조직 안에서 따뜻한 연결감을 느끼다

“서로의 노력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인정하는 분위기, 참 좋아요!”

칭찬 프로그램은 존중과 감사가 일상에 스며드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참여한 직원들의 호응이 높았고, 얼굴을 잘 보기 어려운 타 부서 직원들을 마음집배원 도서전달식 자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칭찬을 통해 결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칭찬대상자의 성실함과 묵묵히 추진한 노력이 공유되면서 서로를 다시 보게 되고, 조직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작은 칭찬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마법의 순간

“‘잘했다’는 한 마디를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이 이루어졌어요!”

책 한 권에 담긴 응원과 감사의 마음, 건강하길 바라는 비타민까지, 마음집배원에 담긴 메시지는 칭찬과 공감, 배려입니다. 조금 더 다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누구에게나 칭찬할 만한 모습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칭찬과 감사가 오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 시작한 업무가 익숙하지 않을 때, 첫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으로 지칠 때, 동료와 사소한 갈등으로 힘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따뜻한 차 한잔을 건네주어 고마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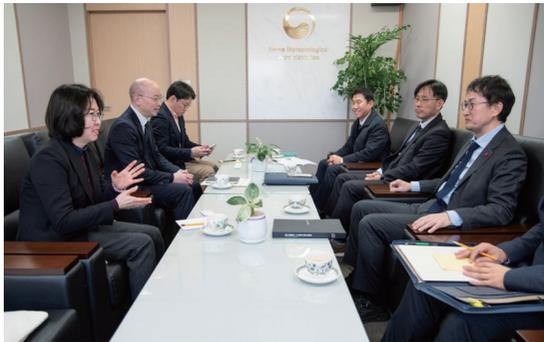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집배원이 되어보세요!

작은 칭찬이 쌓여 행복이 오고,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드는 마법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에서 칭찬이 시작되고, 다정한 공감의 꽃이 하나둘 피어나는 지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사랑이는 봄바람이 기분 좋은 날, 칭찬을 받은 고래는 어디선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겠지요!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이미션 기상청장,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면담 (1월 28일)



이미션 기상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갖고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션 기상청장, 설 명절 맞이 온정 나눔 실천 (2월 11일)



이미션 기상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구세군대전혜생원을 방문해 기상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제18기 기상청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 (1월 23일)



기상청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상청 안팎의 소식을 전달할 제18기 기상청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정환 기상청 차장,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2월 10일)



이정환 기상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대전시, 대전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생생날씨정보통 1화: 일본 폭설과 전 세계 한파 원인



미국은 한파, 일본은 폭설 같은 시기, 다른 현상의 원인은?

#생생날씨정보통 #왜그럴까



지난 2월, 일본을 덮친 폭설과 미국 뉴욕의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폭설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같은 시기, 두 나라에서는 왜 이런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폭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기상현상은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 흐름 속에서 분석되는데요. 세 나라의 대기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매주 금요일, 화제가 된 이슈와 날씨를 결합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생생날씨정보통'의 첫 번째 이야기 - 전 세계를 뒤흔든 극한 겨울의 원인을 지금 기상청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세요!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알람·자료 > 기상간행물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로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X(트위터)
x.com/kma_skylov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 박옥희

봄을 제일 먼저 전해주는 전령사인 홍매화는 겨울철이라도 날씨가 포근해지면 꽃망울을 터트리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며, 싱그럽고 강렬하게 서정적인 봄의 정취를 알려주네요.



☉ 우향화

풍년화는 긴 끈처럼 꽃잎이 나풀거리며, 추운 겨울에 꽃 피우기 위해 진한 꽃향기를 멀리 보내 곤충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잎겨드랑이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노란색 꽃이 모여 피며, 나무꽃이 풍성하게 피는 해는 풍년이라는 전설도 들립니다.

☉ 우윤숙

아직 추위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풍기는 향기에 취해 발걸음을 멈추고 추위로 잃어버리게 하는 매화는 정녕 봄을 알려주는 전령사입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자기 길을 가는 선비를 닮았다 하여 선비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어제,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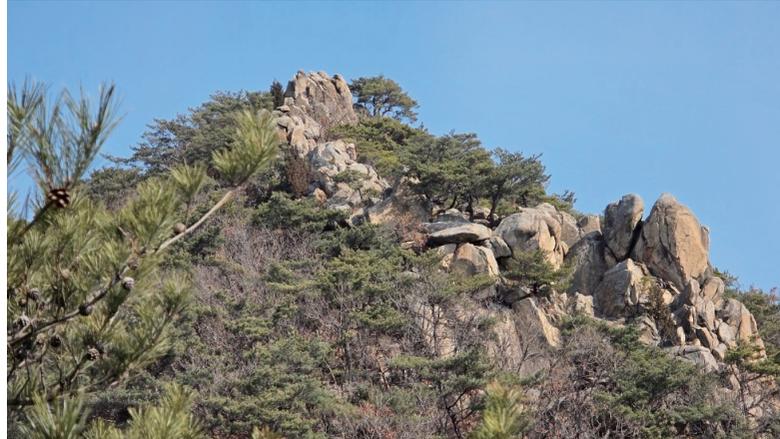


☉ 한덕희

이른 아침, 이 순간이 아니면 녹아 사라질 부산 어린이대공원의 눈 내린 호수 풍경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 없이 사라질 귀한 눈 덮은 따뜻한 남도 부산의 눈 덮인 호수 한 컷. 가던 걸음 멈추고 급히 찰칵! 타지역 분들은 에게게 하시겠지만,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 김은경

하늘을 향해 곧게 솟은 대숲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며,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고요가 번져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자연은 이렇게 깊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 강호우

따뜻한 날씨에 삼성산에 올라 기암괴석을 마주하니 너무 멋져서 잠시 근심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3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운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법률 복지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 고민?
AI가
맞춤형으로
해결



One-Stop으로 만나는 법률 솔루션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지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법률 솔루션

3단계 이용가이드



먼저 AI에게 법률 고민을
 물어보세요!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해결책과 기관 안내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 채널을
 선택하세요.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 중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



방문하지 않고 법률구조 등
 신청하세요!

방문 없이도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전자신청

AI 콜센터

☎ 1661-3119

법률구조 플랫폼

🌐 www.helplaw24.go.kr



당신의 생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공모기간 1.8.~4.15. 18시

1등 최대 1억원

우수 참여자 1만명 3만원



From Idea to Economy

모두의 아이디어



기상이의

행동요령 대작전

강풍이 예보되었을 때

강풍이 예보되면 야외에 설치된
간판이나 시설물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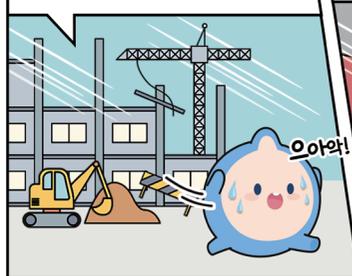


비닐하우스의 경우 취약 부분을 사전에 보강하고,
주위의 물건도 미리 정리합니다.



강풍 특보 발표 시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마세요!



강풍 발생 시 낙상의 위험이 있는
야외 작업은 자제해 주세요.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강풍 특보 발표 시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해 위험정보를 공유합니다.



불철 강풍 시에는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있으니
연제나 주의해 주세요!



강한 바람이 불면

꼭 지켜주세요!

